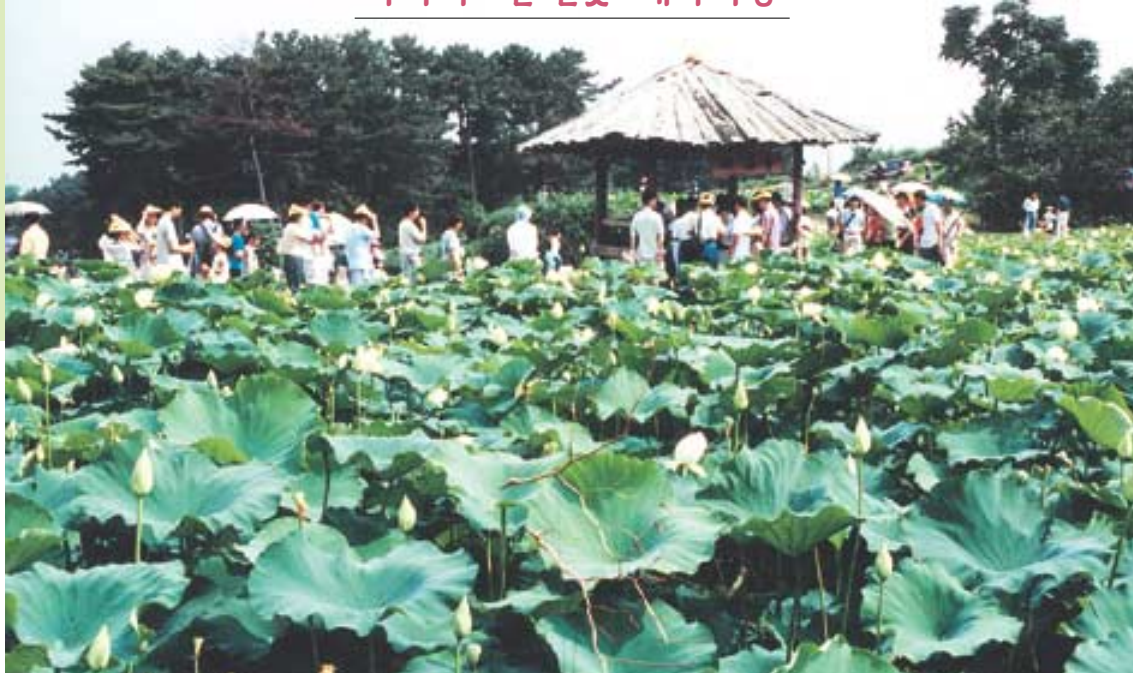


미리가는 연꽃 테마여행

전국의 연지(蓮池)에는 연화세계가 한창 펼쳐지고 있다. 이 연화법석은 8월말까지 계속된다. 이번 주말 떠나는 여행의 테마는 '연꽃'으로 잡아보는게 어떨까. 현대불교신문사가 12일과 19일 마련하는 연꽃축제 기행에 참가하면 하얀 연꽃이 수면위에 핀 장엄한 풍경을 감상하며 번잡했던 일상



에서 벗어나 그윽한 연화향에 빠져볼 수 있다. 이번 기행은 연꽃사찰로 유명한 김제 청운사와 아산 인취사를 비롯해 제1회 세계연꽃축제가 열리는 천안 상록리조트를 하루에 모두 참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자가 미리 기행코스를 따라가 봤다.



◇6천여평의 넓은 연지를 자랑하는 김제 청운사에는 해마다 여름이면 연밭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참 좋다! 연꽃세상

번잡한 일상 벗어나
연화일체 되어 보자!



◇정갈하게 단정돼있는 청운사경내



◇연꽃 수반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인취사



◇제1회 세계연꽃축제가 열리는 상록리조트

오전 09:30-김제 청운사 백련에 눈 즐겁고 연차·연칼국수에 입 즐겨워
서울 조계사 앞에서 3시간동안 고속도로를 달려온 버스는 참배객들을 김제 청운사에 내려 놓는다. 주지 도원 스님이 6천여평의 연밭으로 안내한다. 보는 순간 장엄하게 펼쳐진 연화세계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청운사의 연꽃은 백련이 주종을 이룬다. 특히 도원 스님이 수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해 대대적인 보급을 하고 있는 백련차(白蓮茶)는 신경안정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뜨겁게 마시거나 차갑게 마셔도 달고 향긋러운 맛과 맛을 느낄 수 있다. 스님의 연꽃에찬으로 시작된 법문은 백련차 시음회로 끝을 맺는다. 평소 도원스님은 연지(蓮池) 한가운데 원두막을 만들어놓고 아침 9시부터 밤늦게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은은한 향의 백련차를 정성껏 대접하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 하지만 왠지 오늘 점심공양은 연꽃기행이니만큼 색다르지 않을까. 역시 기대는 무너지지 않았다. 청운사 연으로 만든 연칼국수다. 푸른 색의 굵은 면발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눈과 입 모두 연꽃으로 차장을 하니 연화일체(蓮花一體)가 된 기분이다. 점심 공양 후 아산 인취사로 발길을 돌린다. (063)542-8943.

오후 1시-아산 인취사 해인스님 법문에서 묻어나는 연꽃향기
연꽃은 사찰 바로 못미처 800여평에 이르는 연못을 가득 채웠다. 푸른 연잎이 수면을 뒤덮고 있고, 연잎 위로 하얀 백련들이 등 돌 뒀다. 인취사에 연꽃이 피기 시작한 데에는 백련 보급의 원조격인 주지 해인스님의 노력이 큰 몫을 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간송미술관 최원수관장이 가져다준 백련 세 뿌리의 인연으로 시작된 인취사에는 백련외에도 비닐하우스에 따로 금빛의 황련을 키운다. 이 황련은 연꽃 원산지인 인도에서도 보기 어려운 귀한 꽃이다. 인취사에서는 "연꽃은 시들어 가는 여러 꽃과 달리 만개한 상태에서 떠나 바람에 소리 없이 진다"며 연꽃의 생태만 관찰해도 인생의 깊은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는 스님의 연꽃 법문이 하이라이트다. (041)542-6441.

오후 4시-천안 상록리조트 350종 수련이 주는 삶의 희망
상록리조트는 주위의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진 60만평의 대규모 레저시설이다. 입구로 들어가면 놀이기구와 수영장이 보이는데 공원 중앙에 1200개의 둥그런 수반이 즐비하게 널려 있다. 이것들이 바로 350여종의 다양한 연꽃들을 담아 놓은 향이리다. 하얀색을 비롯해 분홍, 빨강 등 다양한 색이다. '혹시 향기는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해 코를 대보니 그윽한 꽃내음이 전해진다. 6월 28일부터 시작된 '제1회 세계연꽃축제'의 일환으로 전시되는 이번 연꽃들은 우리나라 자생연꽃을 비롯해 인도, 일본 등에서 들여와 재배에 성공한 수련들이다. 특히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꽃 모종도 보급하며 각 가정이나 사찰에서 키울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도 해준다. 곱게 한복을 갈아입은 다도회원들이 다식과 함께 우러내는 연차를 한모금 마시니 아침부터 짝 짜여졌던 여정에서 오는 피로가 말끔히 가신다. (041)560-9132. 글=김주일 / 사진 고영배·박재완기자

■ 연꽃축제 기행 "함께 해요"

기행 코스
김제 청운사
6천 여 평을 가득 채운 백련 감상 및 연꽃 차 시음 및 구배
아산 인취사
연밭 감상과 주지 해인 스님의 '연꽃 법문'
상록리조트 제1회 세계연꽃 축제
350여 종 연꽃이 한자리에 모인 최대의 연꽃 축제 관람
기행 일시 및 인원
7월 12일(토) 오전 6시 30분-오후 8시, 선착순 200명
7월 19일(토) 오전 6시 30분-오후 8시, 선착순 200명
참가비
4인 5만원(아침, 점심식대, 입장료·여행자 보험료 포함)
참가방법
전화신청 (732-1520) → 참가비 입금(동행 053-12-113210 예금주, 하등규) → 입금 확인(본사에서 전화 드림) → 도착배정 - 당일 오전 6시까지 조계사 앞 집결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포스코 30년 - 신뢰와 존경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걸어온 길이 되었습니다, 나아갈 힘이 되겠습니다

포스코는 1973년 우리나라 최초의 일관제철소를 준공,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의 길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취의 역사를 일구어 냈습니다. 이제, 포스코는 존경 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질도와 무결, 성장과 혁신, 그리고 인재를 중요시하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신뢰와 존경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한 변화와 노력으로 새로운 미래의 길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다.

